

염혜란 “내 안의 많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연기죠”

영화 ‘빛과 철’·‘아이’·‘새해전야’ 출연
새해 들어 동시 개봉 ...두렵고 부담도 커
대사에서 단서되는 정보 나오면 노트에 메모

두 여자가 한 교통사고로 남편들을 잃었다. 희주(김시은 분)의 남편은 죽었고, 영남(염혜란)의 남편은 2년째 의식 불명으로 누워있다.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희주는 영남과 맞닥뜨리고, 영남의 딸 은영(박지후)이 희주의 주변을 맴돈다.

오는 18일 개봉하는 영화 ‘빛과 철’(감독 배종대)은 이 세 여자를 둘러싼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각자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며 몰랐던 진실을 향해가지만 드러난 진실이 전부도, 최종 목적지도 아니다.

배우 염혜란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 도달하는 게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미스터리 장르로 풀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인물의 섬세한 변화였고, 그게 잘 드러나야 하는 작품이었어요. 여자 주인공들만 나오는데,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인 이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여자들의 삶을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지요.”

자신이 연기한 영남에 대해서는 “안으로 응축된



‘빛과 철’

태풍의 눈 같은 느낌”이었다며 “태풍의 눈에서 저벅 저벅 밖으로 걸어 나오는 강렬한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영남은 교통사고 이후 사고에 의심스러운 점도 있지만 커가는 딸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 제대로 갈 무리를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 희주를 마주하며 덮어두었던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된다.

“봄이 오기 전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위태하게 버티내고 있는 거죠. 걸으려는 단단한 얼음처럼 보이지만, 건드리기만 해도 깊은 물 속으로 빠질 수



‘아이’의 염혜란(왼쪽)과 류현경

밖에 없는 느낌으로요. 상처들이 방금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 포기했다, 무뎠잖아 싶을 정도로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내재한 감정을 생각했어요.”

언뜻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제목은 반대로 가장 구체적이기도 하다. 마주 오던 두 차가 서로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발견하고, 육중한 철로 된 차체가 부딪치는 사고의 물질적 순간 그 자체다.

염혜란도 “감독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물어본 게 제목의 의미였다”며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둘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끝나고 생각해 보니 빛과 철은 상반된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철이 따뜻해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다른 존재인 타인이 그렇게 만나지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찍고 나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는 작품이네요.”

염혜란은 이 영화로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다.

지난해 화제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경이로운 소문’에 이어 새해 들어 개봉하는 영화만 ‘빛

과 철’ 외에 ‘새해전야’, ‘아이’까지 세 편이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한다고 했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칭찬이 좋기도 하지만, 세 작품이 동시에 개봉하게 되면서 부담도 컸다고 했다. “내 연기를 큰 화면에서 보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많이 노출되면 실망도 많아질 텐데”라는 생각도 앞섰다.

“오래전 연극을 할 때 강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연기하는 인물이 제 옆에 와서 저를 보고 있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이후 내가 맡은 인물이 작품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내 연기를 봤을 때 거짓말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됐죠.”

연극 무대 출신인 그의 연기 공부법은 노트에 담겨있다. 대사에서 단서가 되는 정보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전사를 생각하며 노트에 메모한다고 했다.

영화와 방송으로 옮겨온 뒤에는 상대 배우를 보지 않고 연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카메라를 사람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게 도움이 된단다. 하지만 연기는 여전히 평생의 숙제라고도 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다른 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연기인 것 같아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 수천수만의 나를 발견하는 일이 연기이고, 스스로 한계짓지 않으려고요.”

/연합뉴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오늘 종영...가을에 시즌2 예고

이영하·선우은숙 등 5커플 이야기

TV조선은 이혼한 셀러브리티(유명인사)를 관찰하는 포맷의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가 15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 종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종회에서는 ‘1호 커플’ 이영하와 선우은숙, 그리고 양가 갈등 이슈로 많은 공감을 얻은 최고기와 유갯잎 등 다섯 커플의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

제작진은 “4개월간 많은 변화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진심으로 촬영에 임해준 각 커플에 감사를 전한다. 촬영 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커플들의 앞날에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커플들과 올가을 시즌 2로 돌아오겠다고 예고했다.

초반 신선한 기획으로 주목받았으나 전 쇼트랙 선수 김동성 출연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우리 이혼했어요’가 어떻게 재정비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초반 ‘1호 커플’ 이영하와 선우은숙, ‘2호 커플’ 최고기와 유갯잎의 스토리는 시청자의 공감을 꽤 얻으며 기획 의도를 잘 살렸다. 연 11만 건(통계청, 2019년 기준)을 훌쩍 넘은 만큼 이혼이 적지 않은 현실을 진숙한 예능으로 풀어낸 점도 분명히



‘우리 이혼했어요’의 이영하(왼쪽)와 선우은숙

의미가 있다.

무심한 이영하와 그런 그에게 수십 년 서운함이 쌓여 한이 맺힌 선우은숙이 다시 만나 좌충우돌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터놓는 과정은 장노년층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로 갈라섰던 최고기와 유갯잎의 이야기는 젊은 층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속마음을 터놓는

데 이어 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의 ‘재결합’을 독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일부 시청자는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출연자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찍다가 재결합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충분한 숙려 후에 중대사를 결정했을 출연자들에게도 예의 아니고,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도 인위적이다. 최종회는 오늘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JTBC ‘싱어게인’ 스페셜 편 ‘보너스 트랙’ 방송

JTBC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의 스페셜 편인 ‘보너스 트랙’을 오는 15일 밤 10시 30분 방송한다고 14일 예고했다.

‘보너스 트랙’에서는 결승전 뒷이야기가 공개된다. 파이널 무대에 대한 가수들의 솔직한 심정과 소감, 무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들이 뽑은 톱(TOP)3 최고의 무대, 미방송 분량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우승자인 이승윤이 소속 밴드 ‘알라리강송’ 멤버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2라운드 팀 대항전에서 ‘누구 하나’로 팀을 이



뤄 ‘연극속에서’를 재해석한 이승윤과 이무진의 이야기 역시 공개된다. /연합뉴스

‘골 때리는 그녀들’·‘트롯전국대잔치’ 설특집 시청률 1위

썰났던 이번 설 연휴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은 특집 프로그램은 SBS TV ‘골 때리는 그녀들’과 KBS 2TV ‘트롯전국대잔치’였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방송한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률은 4.8%~8.4%, 6.0%~10.2%로 집계됐다.

여자 스타들의 축구 도전기를 담은 ‘골 때리는 그녀들’은 남다른 볼 감각을 보여준 박선영의 활약으로 FC 불나방이 우승했다. 박선영 외에도 오나미, 진아름, 전마라, 심하은 등이 기량을 발휘하

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방송한 ‘트롯전국제전’의 특집 격인 ‘트롯전국대잔치’도 5.3%~10.2%의 시청률을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팬덤을 과시했다.

특집에서는 각 지역 특산물에 걸린 노래방 대결과 단체전이 펼쳐졌다. 또 ‘트로트 오노이’ 진해성과 오유진의 특별한 듀엣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트롯전국제전’은 설 특집 흥행과 더불어 본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조금 끌어당기면서 전날 시청률이 12.8%~18.2%로 고공행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